

OPEC 총회 평가 및 향후 시장 전망

— 석유개발공사 —

지난 5월 21일 개최된 제91차 OPEC(석유 수출국기구) 총회는 예상을 뒤엎고 Nazer 사우디 석유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별다른 논란 없이 2일만에 현 생산상한을 3/4분기까지 연장 적용키로 합의하고 종료되었다.

이번 총회의 진행 및 그 결과는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써 향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우디그룹은 하반기 경기회복 및 계절적 수요 증대로 하반기 OPEC 수요는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회에서 생산상한을 대폭 증대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이란그룹은 유가 회복을 위해서 현 생산상한의 동결을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Nazer 사우디 석유장관이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과로」를 이유로 불참하고, 석유의 문외한인 Fayed 항만장장을 OPEC 총회에 대리참석시켰다. 뿐만 아니라 OPEC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우디대표는 이해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다가 급기야는 이란측 주장에 가까운 「3/4분기까지 현 생산상한 동결(쿠웨이트 증산 허용)안」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지난 2월 OPEC 감시위에서 2/4분기 생산 쿼타 설정시 사우디의 전횡적인 영향력 행사를 반추해 보면 이번이 아닐 수 없다. 2월 감시위 당시에는 나머지 OPEC 12개국이 합의한 안을 사우디가 결재하는 형식을 취했고, 또 그 내용도 사우디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관철시켰었다. 더구나 이번 회의 종료 직후 일부 사우디 관리는 OPEC 합의사항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배럴당 3달러 정도의 유가상승은 석유 수요 증대추세를 저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현재 석유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우디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향후 시장 유가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91차 OPEC 총회 평가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명목적인 쿼타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즉 2,298만 b/d의 현 생산상한을 3/4분기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쿠웨이트 증산분을 허용한다는 결정 그 자체는 실제 OPEC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OPEC는 현재 2,350만 b/d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쿠웨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추가생산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OPEC 생산량에다가 쿠웨이트의 증산 30~40만 b/d가 추가되고 사우디의 부분적인 증산이 가세할 경우 실제공급이 2,400만 b/d를 넘어서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총회에서 쿼타 결정을 어떻게 하든 OPEC 산유국들의 공급은 자국의 필요 및 수요 증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정책이다. 이번 총회에서 나타난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변화가 사우디 가격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향후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우디 시장정책 변화 가능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회의 과정에서 명백한 태도 변화의 징후를 보여 주목되었는데, 이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사우디는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소식통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도 재정 사정의 악화로 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적 목표가 저유가 시장채어 확대정책이긴 하지만 사우디는 걸프사태 전비 부담등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급등은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적인 유가상승은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이번 회의에서의 타 산유국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작년말 금년초 예상치 못했던 유가폭락의 주범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던 사우디로서는 이번 총회에서 다시 대폭 생산상한 증대 등을 주장할 경우 여타 산유국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즉 하반기 수요 증대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추가 공급분도 잉여생산 능력이 있는 사우디에게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 굳이 명목적인 수치 싸움에서 용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쿼타합의는 해놓고 실제 생산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유가가 급락하지 않는 한 타 산유국이 쿼타위반을 크게 비난할 우려도 없다.

또 4/4분기 수급압박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유정두 생산은 크게 늘리면서 증대분의 일부를 비축하여 4/4분기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셋째 EC가 환경세 추진과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만의 표시라는 견해이다. 즉, EC가 환경세를 추진할 경우 이는 곧 석유수요 증대의 둔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최대 매장량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가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EC가 환경세를 계속 주장할 경우 산유국들이 유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성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OPEC 회의가 EC-GCC회의 직후에 열렸으며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6월 브라질 환경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혹의 가능성은 더욱 짙다는 것이다.

EC 등 소비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세 등의 움직임은 사우디의 시장채어 확대정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극약치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우디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써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명시적 경고조치는 향후 환경문제 논의시에도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는 90년대 석유시장의 주요 변수의 하나가 될 것이다.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복잡한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제리 석유상은 환경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국들이 유가가 너무 낮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환경세 대신 유가 인상으로 그러한 저유가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결국 유가인상분을 소비국이 환경세로 챙기느냐 아니면 산유국이 석유수입으로 챙기느냐 하는 다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 변화가 실제 시장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시장의 관심사이다.

먼저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본적인 시장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우디의 시장정책은 저유가 내지 안정적인 유가를 유지함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을 억제하고 세계 석유수요 증대를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시장채어 확대정책이다. 그런데 사우디 태도변화가 이러한 사우디의 근본적인 저유가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90년대 석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사우디가 기본적인 시장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다 설득력이 높은 추론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및 세계의 경기회복 추세및 하반기 석유수요 급증상황을 인식하고서 하반기 배럴당 3달러 정도의 유가상승을 허용해도, 이것이 수요회복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브라질 환경회의에 앞선 경고성 조치로써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정책변화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유가상한의 목표를 잠정적으

로 다소(3\$/B)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향후 시장 전망

이번 총회에서 사우디가 잠정적인 유가상승 허용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하반기 수급도 매우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하반기 시장 강세는 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석유시장은 연초의 적체재고가 해소되는 등 수급이 크게 개선되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반기는 美國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계절적 수요 증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4분기 對 OPEC 수요는 4/4분기에 대비한 재고비축 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OPEC 공급량은 2,400萬 b/d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3/4분기 OPEC 실제공급은 2,400萬 b/d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수출이 재개될 경우는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는 美國 선거(11월) 등 난제가 얽혀 있어 3/4분기내 이라크 수출의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사우디가 하반기중 유가상승 허용의도를 갖고 있는 한 유가상승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대폭 증산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사우디의 생산물량중 일부는 4/4분기 수급부족에 대비한 비축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은 매우 타이트해질 것이다. 따라서 3/4분기중 유가는 Dubai가 18~19\$/B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4분기의 경우는 對 OPEC 수요가 2,500萬 b/d 수준 이상으로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라크의 공급재개가 없는 한 여타 OPEC 산유국이 최대 생산능력으로 생산해도 수급은 매우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4분기중 사우디 등의 재고비축물량은 4/4분기 수급안정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4분기의 경우는 9월 OPEC 감시위, 이라크 수출재개여부, 기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수급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는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油開公, 주간석뉴스에서〉

〈제91차 OPEC 총회 공동성명 전문〉

제91차 OPEC 총회는 1992년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의장에 UAE 석유장관이자 대표인 Yousef Omeir Bin Yousef 씨를, 교체의장에 카타르의 내무장관이자 임시 재무 및 석유장관인 Abdulla Bin Khalifa Al Thani 씨를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총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경제위원회(ECB)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세계경제 및 석유시장 보고서를 검토한 후, 총회는 1992년 3/4분기 생산상한을 사우디와 이란의 예외조항을 포함한 1992년 2월의 생산상한인 2,298만 2천 b/d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총회는 또한 쿠웨이트의 추가 생산 허용에 합의하였다. 시장상황의 필요에 따라 감시위를 조기에 소집할 것이다.

이라크대표는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총회는 1990년 7월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였고, 회원국들은 합의대로 사무국에 실제 생산수준의 신속한 보고를 계속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총회는 1992년 4/4분기 생산수준 결정을 위하여 1992년 9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감시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총회는 본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따뜻한 환대를 보여준 오스트리아 정부와 비엔나시 당국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회는 합의내용을 회원국의 추인을 거친 후, 1992년 6월 22일 출간할 예정이다. 다음 총회는 1992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할 것이다.

'92.4 월중 에너지 수급동향

○ '92년 4월중 에너지소비(최종에너지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7,650천 TOE로 집계되어 최근 2개월(2월 20.0%, 3월 22.5%)의 증가율보다는 둔화되었다.
1차에너지는 9,395천 TOE로 전년동기보다 1.9%p 높은 13.7% 증가하였으나 산업의 원료용으로 소비되는 비에너지(유연탄중 원료탄, 나프타, 용제 등)를 제외한 에너지용의 증가율은 8.6%로서 전년의 11.1%보다 둔화되었다.

	'91.4	'91.1~4	'92.4	'92.1~4
- 1차에너지 (천TOE)	8,264	34,916	9,395	40,033
(증가율, %)	(11.8)	(11.7)	(13.7)	(14.7)
· 에너지용	11.1	10.2	8.6	10.2
· 비에너지용	15.2	20.4	38.3	38.2
- 최종에너지 (천TOE)	6,497	28,563	7,650	33,160
(증가율, %)	(9.0)	(11.9)	(17.7)	(16.1)
- 에너지수입의존도 (%)	90.9	89.4	93.4	92.9
- 석유의존도 (%)	58.3	57.2	63.0	63.5

○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으로써

- 산업부문은 2월이후 높은 증가세가 4월에도 이어져 22.6% 증가하였는 바, 유연탄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전력은 둔화되었으나 석유는 4월중순의 나프타분해시설 증설(호남)과 석유화학산업의 높은 생산증가로 인한 납시수요 및 비료원료용 부탄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주도하였다.

	'91. 4	'91.1~4	'92. 4	'92.1~4
-에너지소비증가율(%)	14.7	18.5	22.6	21.9
石油(%)	13.4	20.4	44.1	40.2
·에너지油	15.6	19.1	17.7	14.7
·非에너지油	10.3	22.6	84.9	82.5
(나프타)	5.5	20.6	93.9	85.0
(원료용 부탄)	16.9	24.2	562.9	498.9
유연탄(%)	17.9	19.6	△0.6	1.1
電力(%)	11.1	9.3	8.1	9.2
-製造業生産 지수증가율(%)	9.8	8.6	8.6	8.3
·화학·석유·고무(%)	5.2	7.5	17.5	18.0
-제조업 평균가동률(%)	80.9		81.8	

-수송부문은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와 수출출하 증가 및 항공노선 확대 등으로 휘발유·등유·JA-1 등의 증가 영향으로 前年보다 높은 18.9% 증가하였으나 2월(36.7%) 및 3월(28.7%)보다는 훨씬 둔화되었다.

	'91. 4	'91.1~4	'92. 4	'92.1~4
-에너지소비증가율(%)	15.2	11.2	18.9	24.8
-휘발유(%)	23.1	19.0	25.4	32.3
-경유(%)	15.1	13.2	18.2	21.9
-JA-1(%)	8.3	7.3	21.3	24.6
-차량증가율(%)	25.7		24.7	
-자가용(%)	33.0		32.3	
-경유차량(%)	18.3		15.3	
-수출출하지수 증가율(%)	6.2		8.6	
-석유화학·고무(%)	11.8	11.7	21.9	24.6

-가정·상업부문은 전년의 감소세에서 6.4%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는 4월 평균기온이 전년보다 저온현상을 나타냈고, 신도시 입주증가등 전년의 활발한 건축경기 결과로 신축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연탄이 등유·경유로 對替되어 석유소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연탄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91. 4	'91.1~4	'92. 4	'92.1~4
·에너지소비증가율(%)	△4.1	5.0	6.9	3.2
-石油(%)	3.5	16.6	23.9	19.5
燈油	△31.7	△2.4	78.9	42.8
輕油	41.0	55.1	14.3	13.9
-무연탄(%)	△20.2	△12.1	△23.5	△30.7
-전력(%)	16.4	16.1	17.0	18.1
-도시가스(%)	57.4	56.1	47.5	49.4
·무연탄 비중(%)	43.3	34.2	24.9	23.0
·평균기온(서울지역, °C)	13.0		12.0	
·신도시 입주세대수	-	-	4,859	

○에너지소비의 증가에 따라 원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에도 에너지수입액은 전년대비 48.6%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액중 에너지수입액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91. 4	'91. 1~4	'92. 4	'92. 1~4
-에너지수입액(백만\$)	701	4,435	1,041	4,711
-석유수입액(백만\$)	516	3,720	860	3,929
-총수입액중 에너지수입 비중(%)	10.0	16.6	15.3	17.0

〈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

(단위 : 천TOE, %)

	1991				1992				구성비
	4월		1~4월		4월		1~4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최종에너지소비	6,497	9.0	28,563	11.9	7,650	17.7	33,160	16.1	100.0
산업	3,332	14.7	13,570	18.5	4,086	22.6	16,537	21.9	49.9
수송	1,317	15.2	4,885	11.2	1,566	18.9	6,098	24.8	18.4
가정·상업	1,623	△4.1	9,098	5.0	1,735	6.9	9,393	3.2	28.3
공공·기타	225	2.4	1,010	0.1	264	17.5	1,131	12.0	3.4
에너지源									
석유제품(천 Bbl)	28,582	11.3	125,548	15.5	37,412	30.9	162,242	29.2	67.6
무연탄(천 톤)	1,208	△20.3	6,693	△12.3	924	△23.5	4,633	△30.8	6.6
유연탄(천 톤)	1,563	17.9	6,249	19.6	1,554	△0.6	6,319	1.1	12.6
전력(GWH)	8,455	12.1	33,079	11.0	9,361	10.7	37,002	11.9	9.6
도시가스(백만m³)	110	57.0	639	60.4	156	42.9	921	44.2	2.9
신탄(천 톤)	197	△22.4	980	△22.5	178	△9.6	888	△9.4	0.7

〈1차 에너지 총공급〉

	1991				1992				구성비
	4월		1~4월		4월		1~4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차에너지 총공급(천TOE)	8,264	11.8	34,916	11.7	9,395	13.7	40,033	14.7	100.0
석유	33,916	20.2	141,857	18.7	42,353	24.9	182,391	28.6	63.5
L N G(천 톤)	195	46.1	935	39.8	256	30.9	1,244	33.1	4.0
무연탄(천 톤)	1,383	△19.2	7,358	△11.7	1,080	△21.9	5,231	△28.9	6.0
유연탄(천 톤)	2,072	15.4	8,242	18.5	2,068	△0.2	8,533	3.5	14.1
원자력(GWH)	4,103	△4.4	17,162	△3.0	4,529	10.4	17,433	1.6	10.9
수력()	441	△20.0	1,404	11.0	426	△3.4	1,444	2.8	0.9
신탄(천 톤)	197	△22.4	980	△22.5	178	△9.6	888	△9.4	0.6